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제776호

P.C. 2019-380
April 23, 2019

CANADA
PRIVY COUNCIL - CONSEIL PRIVÉ

Her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pursuant to
sections 7 and 33 of the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makes the annexed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Plain and
Standardized Appearance)*.

CERTIFIED TO BE A TRUE COPY-COPIE CERTIFIÉE CONFORME

Jan Sussman

CLERK OF THE PRIVY COUNCIL-GREFFIER DU CONSEIL PRIVÉ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 관련 개정안을 담고 있는 BILL S-5에서 담뱃갑포장통일화에
관련한 시행령이 총독의 재가(Royal Assent)를 얻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예정으
로는 5월 23일에 재가가 이뤄지고 이후 정부의 수순대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관련 기사는 12면 ~14면 참조)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매출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LOTTO MAX 앞치마를 착용하십시오

판촉 메모지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교육하십시오

LOTTO MAX의 새로운 파격적 특징을 고객들에게 홍보하십시오: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추첨
- 1 등상 최고 \$7천만
- 사전 구매는 주 2 회, 최다 26 주까지 가능

첫 추첨: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5 번호 조합
3줄 당

이제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추첨

1등 상금 최고
\$7천만



DREAM TO THE MAX

소매업자 신분 확인

소매업자정책매뉴얼 (Retailer Policy Manual) 제 2.2 절 소매업자 신분 확인 정책 (Retail Identification Policy)에 따라, 모든 해당 소매업자 및 그 직원은 복권 상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복권 단말기에서 올바르게 신분이 확인되도록 하십시오. 소매업자정책매뉴얼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읽고 이해한 직원은 업주가 자신을 대리하여 신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OLG 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소매업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AGCO 가 소매업자 신분 확인 명단의 정확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

- 직원 명단을 인쇄하여 검토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명단을 점검하십시오.
- 모든 신규 직원의 성명이 올바르게 추가되도록 하십시오.
- 모든 성명은 정부 발급 신분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성명은 명단에 한 번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성명이 틀렸거나 삭제되어야 할 경우, OLG 지원센터 (Support Centre)에 연락하십시오.

복권 단말기에서 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소매업자는 OLG 에 문의하십시오 (1-800-387-0104).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 & Huron <공석>
Kingston 회장 이강경(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공석>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 04 - 07, 09 / RCC 소매업 전망 보고서
킹스턴 지구협회 골프대회
- 08, 10 -11 / 反 탄소세 목청 높이는 온주 정부
- 12 - 14 / 연방 담뱃갑 포장 통일화 일정 확정
英, 편의점 주인과 할퍼 동시 옥살이
- 15 / 독자 투고(김윤배 회원) : 손주의 돌잔치
- 16 / 2019 Nestle Ice Cream Exclusivity Agreement
- 18 / DIRECTORY
- 19 / 조합, 베이핑 제품 6월부터 배달
- 20 ~ 23 / K.B.A. 협동조합 5월 스페셜

소매업 전망 (Retail Perspectives)

온타리오의 알콜(Alcohol in Ontario)

선택과 편리성 증대가 일자리 늘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
(Choice & Convenience means Jobs & Growth)



■ 전국 소매업 현황 통계

〈州別 소매업 규모〉

주 구분	매출액(\$)	소매업소 수	종사 인력
B.C	843억	20,398	290,290
알버타	803억	17,219	263,630
사스케추완	196억	4,882	67,455
매니토바	204억	4,712	65,960
온타리오	2,163억	51,460	843,170
퀘벡	1,257억	32,932	497,840
뉴브런스윅	128억	3,398	42,060
노바스코시아	159억	4,103	65,635
뉴펀들랜드/레브라도	92억	2,718	28,235
P.E.I	23억	833	9,195
유콘(준주)	8억	186	3,630
노스웨스트(준주)	7.7억	182	3,345
누나붓	4.4억	80	1,645
전국	5,888억	142,103	2,182,090

〈기초 팩트 체크〉

-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소매업 전체 매출액은 약 5,900억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 전국 소매업소 수는 약 14만여 개를 초과한다.



지난호 실험뉴스 775호 톱 기사로 '편의점 주류 판매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하에 전국소매업협회(RCC ; Retail Council of Canada)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본 지면에서는 동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며 편의점을 포함한 캐나다 소매업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온타리오 주류판매 민영 확대에 인한 주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증대 효과에 집중할 것이다.

- 종사 인력은 약 220만여 명이며 이는 전국 근로 인력의 11.6%를 차지하는 규모다.
- 2018년 기준으로 소매업 전체에서 발생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약 65억 달러였다.
- 2017년 기준으로 소매업소 시간당 인건비는 22.5 달러였다. 2018년 기준으로 고용인력에 지불된 연간 임금은 총 760억 달러였다.

■ 보고서 개괄

온주 정부가 주류 판매망을 넓히고 편리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소매업 매출을 증대하고 주 전체 경기에 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B.C주가 식품점에 주류 판매를 허용한 이후의 자료를 보니 허가받은 식품점 한곳 당 평균 매출이 88만 달러였다. 이 수치는 온타리오에도 통용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의 주류 소매 판매처는 2,702개다. 온타리오의 2019 회계연도 예산 발표 내용을 보면 인구 1만 명당 술 판매처가 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5.9개소에 한참 못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온주는 4,028개를 추가해야 한다. 늘어난 이 민간 판매망의 연간 술 매출은 온주 GDP에 35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B.C의 경우인 88만 달러에 4,028을 곱한 수치)

이같은 사실에 대해 비어스토어(The Beer Store)에서 유포시키고 있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선택의 폭과 편리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맥주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가지 주장 모두 근거가 없다. 비어스토어에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임 직원까지 포함한 직원은 7,000여 명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인데 현재의 주류 판매망에 민영 판매망이 추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경쟁이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비어스토어가 폐업을 하지는 않는다. 주류 판매 사업을 보태는 민간 소매업소 한 곳 당 평균 2.3 명의 고용인력이 창출될 것이고 전체로는 대략 9,100여 개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비어스토어 인력과 상쇄하더라도 2,100여 개의 추가 일자리가 보장된다.

맥주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두번째 주장은 퀘벡과의 비교를 통해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온타리오의 인기 맥주 평균가격이 퀘벡보다 8.3%가 더 비싸다. 선택과 편리성 증대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 결과가 기대된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사와의 딜을 통해 가격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RCC의 전망은 선택과 편리성 증대가 온타리오 경제와 온타리오 주민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결론이다.

■ 가격 현황

주류 가격에 대한 빠른 이해는 주류세(酒類稅:alcohol tax)를 살펴보는 것이 첩경이다. 연방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술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한다. 그리고 알콜 도수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맥주의 경우 2.5도(%)를 초과할 경우 리터 당 약 33센트를 부과한다. 이는 연방이며 전국에 예외없이 통용되는 것이고 주별(州別)로 살펴보면 다양하다. 대부분의 주는 가격 정책을 주류관리위원회(Liquor Control Board)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관청이 담당한다.

온타리오는 LCBO라는 곳이 담당하며 3종으로 구별되는 주류세 시스템

CLOUD SERVER를 통한 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고객 매출등의 데이터 정보교환 가능

"1Solutions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입니다!"

포스 가격

\$2500 + Tax

(바코드 스캐너, 근전함, 소프트웨어 포함)

Made in Korea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빠르다!
간편하다!
저렴하다!

OLG 온라인 로또 바코드 형식 시행

www.1solutions.ca
Toll Free 1(888)554-7355
Direct Line (905)560-4511
Fax 1(888)544-0409

info@1solutions.ca
(416)900-7533

템을 가지고 있다.

1. 재활용 불가 용기에 담기는 술에는 환경세 명목의 세금이 붙는다. 용기 1개 당 8.93센트다. *재활용되는 병이 용기일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주량세(酒量稅 volume tax)가 붙는다. 리터 당 부과하는데 맥주는 리터 당 17.6센트다.

3. 기본세(basic tax)라는 것이 있다. 이윤폭에 기초한 가격 인상폭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주(spirits)는 61%가 이윤율인데 이를 기초로 인상이 되면 인상분이 세금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맥주는 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양(量), 즉 리터 당으로 또 하나의 주량세로 처리한다. 맥주의 이 또다른 주량세는 리터 당 8.833센트다.

맥주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월별로 재무장관에게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온타리오는 LCBO 라는 관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세가 된다. 면세된 만큼의 세금분이 소매가격에 부과돼 결국에는 LCBO 를 통해 세금분이 재무부에 가는 구조다.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그래서 LCBO를 통해 구입되며 비어스토어와 관계가 없다.)

지역 중소 양조장(microbrewers)과 대형 주류 제조사들과의 규모 차이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소비자와의 통로가 연결되기 쉽지 않고 가격 경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정부들은 저마다 이들에게 감세 정책을 취한다. 온타리오 역시 이들에게 리터 당 기본세를 3.834센트 부과한다. (정상에서 56.6%를 감해주는 결과다.) 퀘벡은 리터 당 2.079 ~ 4.221센트를 부과 한다. (정상에서 33% ~ 67%의 감세)

온타리오의 주류 가격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 퀘벡과의 자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표 1 참조) 세전(稅前; pre-tax)가격, 대중적 소비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교했고 24개 팩 기준 가격이다. 그리고 시점은 올해 2월 기준이다. 또, 온타리오는 비어스토어가격이고 퀘벡은 일반 소매업소(편의점이나 식품점 등)의 평균 가격이다.

〈표 1〉

브랜드	온타리오	퀘벡	가격차(%)
Molson Canadian (24 x 355mL Can)	\$ 37.65	\$ 29.97	20.4
Coors Light (24 x 355mL Can)	\$ 37.65	\$ 30.40	19.3
Bud Light (24 x 355mL Can)	\$ 37.65	\$ 29.51	21.6
Corona (24 x 341mL Bottles)	\$ 41.19	\$ 32.94	20.0
평균	\$ 38.54	\$ 30.71	20.3

그러면 각종 세금이 붙은 후의 가격도 알아본다. 이 역시 퀘벡과 비교할 것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캔 맥주의 평균가에 기초한 24개 팩 기준에 적용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퀘벡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도 온타리오에 비해 낮다. (표 2 참조)

자료 작성은 온주 재무부, 퀘벡 세무청, 국세청(CRA) 자료를 기초했다.

〈표 2〉

	온타리오	퀘벡	차이(%)
기본가격 Base price	\$24.56	\$22.53	8.3
기초세금 Basic tax	\$7.53	\$5.37	
연방 특수세 Federal excise duty	\$2.81	\$2.81	
주량세(酒量稅) Volume tax	\$1.50		
환경세 Environmental tax	\$2.14		
순수 소매가	\$38.54	\$30.71	20.3
판매세(sales tax) 연방 및 주정부 세금	\$5.01	\$4.60	8.2
최종 소매가	\$43.55	\$35.31	18.9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횡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가정법
- * 민사소송
- * 소액재판
- * 세권, 세입자 분쟁
- * 주류 판매법
- * 복권 판매법
- * 담배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사실 매우 빈번하게 뉴스를 통해서든 또는 보다 광범위한 이런 저런 주장들을 통해서든 비어스토어가 원가 절감 혹은 독과점 체제의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가격 인상을 꾸준히 주도해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표 2를 보면 첫째 줄 '기본가격'은 여하한 종류의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가격이다. 여기서 이미 퀘벡 평균 맥주가격보다 온주 맥주가격이 8%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4가지 세금이 더해지고 난 후의 소매가는 20% 이상으로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이 주장에 대해 비어스토어 측은 규제완화된(deregulated)시장이 되면 (*민영 판매망이 확대되면)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세금 부분은 차치하고 기본가격(세전 가격) 자체가 공급사와의 아무런 가격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이윤 보장 체제이며 이 일방적 이윤 체제는 단지 두개의 거대한 다국적 맥주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 자본이 아닌 비어스토어 소매채널의 모회사격인 안하이저부쉬인베브(Anheuser-Busch InBe)와 삿뿌로(Sapporo Brewer)를 위한 것이다.

■ 기타 정보와 결론

본 조사에서 두가지의 회귀분석(回歸分析;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동원했다. B,C주가 민영판매 확대 조치를 취한 이후 매출과 고용창출 측면의 변화를 확인해보기 위함이었다. 기본적인 가정(假定)이 있었다. 주류소매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라면(소매채널망이 인구 대비해서 충분한

수준) 추가로 민영채널을 늘려봐야 그 효과는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는 가설말이다. (*이는 현재의 소매채널망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 효과가 매출 증대와 경기 진작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알버타와 퀘벡은 민영 확대 조치 이전에 이미 상당한 소매채널망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경제에 미치는 추가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지만 B.C의 경우는 2003년 시장 규제완화조치로 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했다.



▲ 지난 4월 12일 스카보로 조찬 예산설명회 자리에서 500여 유권자가 운집한 가운데 빅 피델리 재무장관은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을 재확인했다. 현재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안 마련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9면에 계속>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월드매싱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反 탄소세

목청 높이는 온주 정부

회원 업소에서 장관들 비판 성명 발표



▲ 회원 업소에서 탄소세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온주 환경부 로드 필립스 장관. 왼쪽은 타드 스미스 경제 개발부 장관, 오른쪽은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월로데일을 지역구로 하는 스탠 조 의원.

연방 자유당 정부가 시행 중인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 초지일관 반대 입장을 보여온 온주 보수당 정부가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 업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9일(목) 아침 9시에 협회 노스욕 지구협 소속 정순복 회원의 업소 'Drewry Variety' (3 Drewry Ave., #11, North York)에서 온주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arks)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and Trade) 그리고 업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구(월로우데일) 출신 스탠조(Stan Cho 한국명 조성훈)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로드 필립스(Rod Phillips) 장관, 경제개발부에서는 타드 스미스(Todd Smith) 장관이 직접 업소에 나타나 업소 안에 차려진 간이 포디엄에 3명이 나란히 서서 차례로 탄소세 반대 입장을 전했고 주류 언론에서 취재에 분주했다. 협회에서도 두명의 직원이 행사장인 회원 업소를 방문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성명의 핵심 내용은 연방 탄소세가 불필요하고 안그래도 세금과 각종

광열비 인상으로 어려운 스톨 비즈니스에 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온타리오 정부 자체의 환경정책안도 수립돼 있는데 탄소세와 같은 추가 세금없이 연방이 달성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10면에 계속)

지금
전화주세요!

BROKERTEAM
INSURANCE

박효진(Roland Park)
Cell. 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험 단체보험

<7면에 이어>

소매업 전망 (Retail Perspectives)



자유당 정권 시절,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 등 식품점에 주류 판매를 허가해준 업소 당 평균 연 매출이 88만 달러였다.

현재 온타리오내 주류 소매판매처는 2,702개소이다.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전국 평균치에 수렴하려면 4,028개를 추가해야 한다. 편의점을 포함한 식품점 등 소매업소로 판매 확대를 했을 때 연간 GDP가 35억 달러 증가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추론이다. 또한 추가되는 업소 당 평균 2.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총 9,1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RCC는 온타리오의 현재 맥주에 한해서 퀘벡과 비교 시 세전(稅前)가격이 무려 8.3%나 비싸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RCC는 비어스토어가 유포시키고 있는 여러 수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택과 편리성의 증대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택과 편리성의 증대는 온타리오 술 소비자와 주 경제 전체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

킹스톤 지구협회 골프대회

2019년 킹스톤 지구협회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7월 10일(수)
오후 11시 30분 등록 시작 (점심후 12:30 샷건 개시)
- **장소** : Barcovan Golf club
1412 County rd. 64, Carrying Place, On, K0K 1L0
(길 안내: www.barcovangolf.com)
- **참가비** : 1인 당 \$100 (점심/저녁, 카트 포함)
*당일 등록 시 지불
- **신청 마감** : 7월 3일
연락처는 이강정(CEL:613-403-0142 또는, jkone1026@hotmail.com)
- **기타 사항**
 - 조 편성 희망자는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알려주셔야 반영이 되며, 아니면 주최측이 편성한 조를 따라야 합니다.
 - 경품이나 후원금 기부를 적극 환영하오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푸짐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킹스톤 지구협회장 이강정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얼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최고급 점보 씨앗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8면에 이어>

反 탄소세 목청 높이는 온주 정부

연방이 추진하는 탄소세를 확고하게 반대하는 주는 온타리오 이외에도 사스캐추완,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주가 있다. 여기에 이전 신민당(NDP) 정권에서는 앞장서 도입했지만 올해 정권이 바뀌어 연합보수당이 집권한 알버타의 제이슨 케니 수상이 폐기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연방 정책의 갈 길이 순탄해보이지 않는다.

온주 정부가 내놓고 있는 탄소세 반대 근거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정 난방비 인상

온주 천연가스료는 4월 중 1 입방미터 당(m³) 3.9센트가 올랐고 2020년에는 5.9센트, 2021년에 7.8센트, 2022년에는 9.8센트가 각각 오를 추산이다. 가정용 난방비의 큰 인상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만큼 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크게 된다. 난방비를 비롯한 가구당 생활비 부담은 올해 258달러, 2022년이면 648달러 인상될 전망이다.

● 공공시설 난방비 인상

온주 내 병원의 연간 난방비용이 올해 1천만 달러 초과 지출되며 2022년이 되면 2,700만 달러가 추가 지출된다. 요양원을 비롯한 양로 단체들은 올해 670만 달러, 2022년에는 1,670만 달러 추가 지출된다. 대학은 올해 약 1천만 달러, 2022년이면 2,400만 달러 초과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 차량 연료비 인상

올해 리터 당 4.4센트가 인상되며 2020년 6.6센트, 2021년 8.8센트, 2022년 11.1센트가 오른다.

●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부담금 정책**은 비즈니스쪽에서는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 적용되고 있는데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이에 반해 온주 정부가 마련한 안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비즈니스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탄소세 반대 성명을 차례로 발표한 두 장관과 스텐 조 의원은 발표를 마무리하고 회원 업체의 주인 부부와 담소를 나누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성명의 자세한 내용은 박스 기사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탄소세 관련 온주 환경부 발표 보도자료>

회원 업체에서 장관들 비판 성명 후

친 비즈니스 정책을 위해 일해오고 있는 온주 집권 여당인 보수당 정부는 일자리를 없애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 정책을 엄중히 반대한다. 온주 내에 47만 개 이상의 중소상공업체가 있고 주 전체 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고용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업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진력하고 있다.

연방 탄소세 제도가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경제적 부담은 주내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미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가면 2022년에 연평균 난방비는 평균 1천 달러 가량 증가된다. 업소 발전과 고용창출 증대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이다. 1천 달러라는 돈은 예를 들어 카페 업주인 경우 그만큼의 원두를 구입해 1,122잔의 커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돈이고 종업원을 한명 추가로 고용한다면 2주치 급여에 해당한다.

로드 필립스 환경부 장관과 타드 스미스 경제개발부 장관은 금일(5월 9일) 편의점 Drewry Variety에서 연방정부 탄소세가 어떻게 스몰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설명했다.

스미스 장관은 “연방 탄소세는 일자리 죽이기 정책이다. 소자영업의 간접 경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영업 성장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소상공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정부가 필요한 것이지 불필요한 추가 세금이 필요치 않다. 우리 보수당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적극 지지하며 종업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장관

의 이어진 말이다.

필립스 장관은 “우리 정부는 비즈니스에 개방적이고 일자리에 개방적인 정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연방 탄소세 정책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이유이며 여기에는 법정 다툼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 자리를 앗아가는 연방의 탄소세 정책이 위험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이유이며 근면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온주 정부의 자체 환경플랜(Made-in-Ontario Environment Plan)을 제시한 이유다.” 필립스 장관이 보탠 말이다.

소상공업계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 이미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 독립사업체연맹(CFIB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이 4개 주인 온주, 사스캐추완, 매니토바, 뉴브런즈윅의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87%가 탄소세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회장 댄 켈리씨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의 벼랑끝에 몰려 있는 처지”라면서 조사 결과를 놓고 “4개 지역의 소상공업체 84%가 탄소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개 주는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방 탄소세를 반대하는 입장임.)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탄소세 시행과 아울러 보장했던 정부 보조금이나 리베이트와 관련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한 가운데 한달을 넘기고

있다. 리베이트 프로그램 모델이 소상공업 지원을 목표로 한, 예를 들어 '저탄소경제펀드'(Low Carbon Economy Fund)같은 프로그램들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닌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 자격 업체 당 친환경 프로젝트에 최소 2백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 하고 있어서 온주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 댄 켈리 회장은 "탄소세의 절반을 소상공업계로부터 걷는데 이에 비해 되돌려주는 보조금과 리베이트는 고작 7%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회장은 "연방정부가 탄소세 정책을 포기하고 스몰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4개 주와 협의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온주 정부가 창안한 환경플랜인 'Made-in Ontario Environment Plan'은 우선 순위, 과제와 기회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이며 2005년에 설정했던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을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연방정부가 준수하려는 파리협정을 역시 준수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탄소세 부담을 스몰비즈니스 업주와 주민들에게 지우지 않으면서 가능한 계획이다.

개인들과 업계의 노력을 통해 온주는 이미 이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하고 있으며 2005년 대비 배출가스가 22% 감소된 상태다. 이 수준에 이르기 위해 온주의 소상공업계는 상당한 재정 지출을 했다. 저배출을 위한 전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소상공인에게 월 평균 435달러의 추가 지출을 부담시켰으며 연간으로는 5천 달러 이상을 투자했던 것이다. 그런

데 여기에서 다시 탄소세를 추가해 온주 비즈니스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상황이다.

온주 자체의 환경플랜은 탄소세를 반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막을 더 많은 대응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책이며 양자택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 필립스 장관의 결론이다. 장관 말대로 "온타리오는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경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온주 정부는 온주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연방 탄소세 저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미 항소법원에 이달 초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가 열렸으며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



▲ 사진은 지난 4월 2일 스카보로의 한 시니어 부부 가정을 방문한 로드 필립스 환경부 장관과 조성준 노인 복지부 장관이 연방 탄소세로 가정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연금에만 의존해 수입이 고정된 시니어들이 탄소세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탄소세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다운타운
메디슨 사무실
이전 안내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다운타운 메디슨 사무실이 오는 2019년 6월 6일에 이전한다. 새로운 KCWA 노스욕 센터 사무실(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은 노스욕 시빅센터와 멜라스트먼 광장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노스욕 센터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다운타운 메디슨 사무실이 이전하더라도 KCWA의 기존 모든 전화와 팩스번호는 동일하며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540 Finch Ave. W. North York)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KCWA 노스욕 센터 사무실은 오는 2019년 6월 10일(월)부터 정상운영될 예정이며, 이사 당일인 2019년 6월 6일은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만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내년 2월 7일부터 소매상 시행

연방 담뱃갑 포장 통일화 일정 확정

캐나다가 마침내 담뱃갑 포장 통일화, 일명 '평범한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로 지난 2012년 호주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주로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가 뒤를 이었고 같은 영연방인 캐나다도 벤치마킹을 하더니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시행 9개국〉

국가	소매업 시행일	생산자 시행일 (생산 중단일)
오스트레일리아	2012/12/ 1	2012/10/ 1
프랑스	2017/ 1/ 1	2016/ 5/20
영국	2017/ 5/20	2016/ 5/20
뉴질랜드	2018/ 6/ 6	2018/ 3/14
노르웨이	2018/ 7/ 1	2017/ 7/ 1
아일랜드	2018/ 9/20	2017/ 9/30
헝가리	2019/ 5/20	2018/ 5/20
슬로베니아	2020/ 1/ 1	2020/ 1/ 1
캐나다	2020/ 2/ 7	2019/11/ 9

연방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시행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2020년 2월 7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종래의 디자인과 로고로 차별화 되던 담배 모습은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대신 호주에서 보던 바와 같은 칙칙하고 규격도 동일한 담배만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갈색 바탕의 색상을 띤 담배갑이다. 영어로는 “plain, dull and brown pack”이라는 전형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각적 매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무늬 표면 처리가 돼 있다는 말이다.

또, 여하한 형태의 로고도 인쇄될 수 없고 단지 하단에 정해진 아주 작은 사이즈의 브랜드명이 박힐 뿐이다. 담뱃갑 형태는 현재의 상단 뚜껑 개폐형(flip top)과 신 모델인 탄창형(slide & shell)을 병행 유통시키다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즉 2021년 2월 쯤부터는 탄창형으로 일원화 되고 뚜껑 개폐형은 사라진다. 그런데 탄창형으로 일원화되는 시점을 업계에서는 다르게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임페리얼 토바코측은 2021년 11월 9일부터 탄창형으로 일원화해서 공급에 들어가고 소매상은 2022년 2월 7일부터 탄창형 담배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정부 요구 시점대로 제조사와 소매업계는 따르면 그만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품담배는 이 형태가 매우 드문데 반해 불법담배들의 대부분은 탄창형이라니 짝퉁 담배 제조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



▲ 뚜껑 개폐형과 탄창형의 전형적 모습. 1년여 동안 병행하다가 오른쪽 형태로 통일된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입법 시행이 확정됐으나 제조사든 도.소매업계든 담배업계의 우려는 과거와 동일하다. 안그래도 짝퉁과 탈세 담배들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짝이 없는 디자인과 형태의 담배로 획일화되면 짝퉁 담배가 더 수월하게 제조돼 범람을 부추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온주편의점협회(OCSA)는 “조직범죄단이 지하 시장을 키울 환상적 기회(fantastic opportunity)” 라고 까지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연방정부는 담뱃갑포장통일화 시행을 담은 법안 Bill S-5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관련 시행령 준비에 거의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시행에 9개월의 유예를 줬다. 이만하면 여론 수렴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주장할 만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각종 모임과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약 3개월을 보낸 점도 눈에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특히 편의점 입장에서는 호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종업원 실수, 신변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앓을 것이다.

국내에 앞으로 등장할 담배를 건본 그림으로 한번 체험해보자. 25개비 라지 사이즈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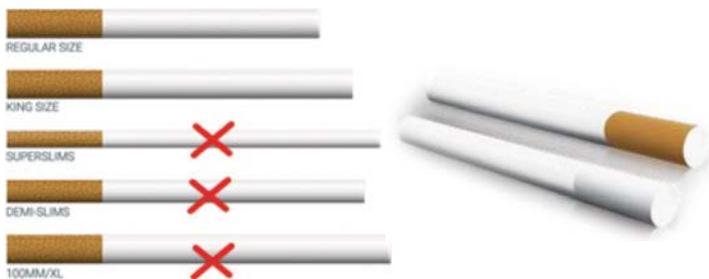


예를 들자면 저 그림과 같은 모양이다. 바탕 색상은 칙칙한 갈색이고 거의 대부분의 표면이 건강 경고 메시지와 흉칙한 그래픽으로 뒤덮인다. 그리고 브랜드명은 하단에 명회색(pantone cool gray)의 사이즈 14포인트로 인쇄된다. 지금처럼 브랜드명이 회사마다의 고유 디자인이나 색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색상과 규격이 획일화되는 것이다.



획일화되는 규격과 디자인으로 불법담배 제조가 더욱 수월해지는 것에 더해 가장 심각한 지점은 바로 각각의 개비 담배 모양이다. 왼쪽 그림은 맨 위가 정품담배(legal)이고 가운데는 앞으로 나올 담배이며(plain packaging) 맨 아래가 도처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담배다. 그림으로 봐도 두번째인 평범한(plain)담배와 그 아래의 불법담배의 식별은 쉽지 않다.

현재의 정품담배는 나름의 고유 디자인과 브랜드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어 불법담배와 금방 구별이 되지만 앞으로 나올 담배는 짝퉁과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담뱃갑 표면만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담배 개비에서도 통일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다. 그나마 식별 아라비아 숫자가 인쇄돼 있다고는 하지만 짝퉁 또한 숫자 찍어내는 작업은 별 일도 아니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도 없다.



담배 개비 규격도 킹사이즈와 레귤러 두종만 가능하다. 현재의 다양한 모양들인 각종 슬림형이나 100밀리짜리 담배 등은 제조 금지된다. 따라서 소매장에서 팔 일도 없다. 또, 담배 말이 페이퍼의 색상은 흰색으로 통일되며 필터말이 부분은 무광(無光; matte)처리에 색상은 흰색 또는 코르크 칼라에 한한다.

이상 여러 디테일을 살펴보건데 불법담배 업계로서는 지난 수년간의 매출 부진에 소강 국면을 겪다가 재도약(?)할 희망과 기회를 얻은 여간 반가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정품 담배 제조사들은 기존의 불법담배 제조 방식을 표준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도 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불법담배 업계는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정품담배 행세를 하며 담배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모하 원주민 지역의 하나인 퀘백의 카나와케(Kahnawake)에서 제조되고 그 지역내에서만 유통돼야 하는 금수품(禁輸品) 'PlayFare'는 인기 프리미엄급 담배 'Player's'하고 매우 닮았다. 물론 이런 담배들이 무조건 불법(illegal)담배는 아니다. 유통 지역에서만 만들어 유통되면 적법한 제품이지만 이것이 지역을 벗어나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담뱃갑통일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인기 정품 브랜드 모조품 제작은 매우 용이하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왼쪽 그림은 원주민 마을에서 제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금수품(禁輸品; contraband) 담배들이다. 오인하기 쉽게 디자인은 감쪽같이 모방했고 브랜드명도 약간씩 변경(Import 'A', Export, Rockmans, PlayFare's)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음먹고 불법담배를 찍어내겠다고 작정하면 이 정도의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연방경찰(RCMP)도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이 야기할 향후의 담배 시장 혼란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장 걱정이 큰 사람들은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업계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며 정품 담배만 판매하는 편의점 주인들과 종사자들에게 내년 2월부터 상당한 시련이 시작될 것이다. 늘상 그래왔듯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십종의 똑같이 생긴 담배에 적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을 것이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소비자들과의 사이에서 빚어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버거운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앞서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 영국이나 호주의 편의점 업주들과 종사자들이 여러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 특히 프리미엄급 담배를 고집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애호하던 브랜드가 외관상 무미건조하고 다른 저가 담배와 구별도 안되는 그저 그런 자신의 담배를 대하며 소비의 매력을 크게 잃을 것이다. 담배 소비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면 편의점 매장 판매에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시행을 눈앞에 둔 모든 이해당사자들, 즉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와 도·소매상들에게 적지않은 당혹감을 안길 이 새로운 제도의 향후 파장이 크게 주목된다. ■



▲ 위장해서 보관된 불법담배 보관함. 달으면 그냥 문짝으로 보인다.

英, 편의점 주인과 헬퍼 동시 옥살이 업소에 불법담배 보관함까지 위장 보관 판매

영국 잉글랜드의 옥스포드 외곽 소도시 클러스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인과 종업원이 함께 징역 살이를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때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스트리스(Costless)라는 상호의 편의점 주인 바드란 세드씨와 종업원 후세인은 가짜 담배를 업소에 감춰놓고 판매한 사실이 단속반의 함정단속으로 1차 적발됐다.

이들은 바다이나 문짝을 위장해서 불법담배 보관함을 아예 만들어 놓고 암암리에 손님에게 팔아오다가 걸린 것인데 7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적발돼 마침내 쇠고랑을 차게 된 것이다.

물량으로는 최초로 적발됐을 때 3,000파운드 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이후 700파운드, 800파운드 등의 물

량으로 빈번히 벌금과 압수를 반복해서 당하다가 마침내 형사 입건돼 주인은 3개월, 종업원은 18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됐다. 형량으로 볼 때 주인이 적극적으로 불법담배를 판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주도했다고 보여진다. 종업원 후세인은 이 업소뿐 아니라 가짜 담배 소지 및 공급과 관련해 34건의 위반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과 지자체 위원회는 "불법 담배 판매는 단순한 세금도둑질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규탄하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이 반복해서 저지른 불법담배 관련 범죄로는 기록적"이라고 말했다. ■

손주의 돌잔치



어제 손녀의 돌잔치를 무사히 잘 치렀다. 별로 한 일이 없었는데 마치 꿈속을 다녀온 듯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성당에 나가 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곧바로 가게로 내려와 허전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이렇게 글을 쓴다. 아마 내일 이면 미국으로 떠날 딸 아이와 손주 그리고 사위 생각에 더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을 느끼나보다.

모든 문화와 환경 그리고 언어가 다른 캐나다로 이민을 온 딸아이 성은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과정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단적인 카타리나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지난 금요일에 토론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올 봄에 친구의 결혼식과 손주 돌이 가까운 시기에 있으니 토론토에서 친구 결혼식에 끝난 후에 이곳에서 손주 돌을 치루면 어떨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결혼한 까닭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가까운 친지분들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토론토에서 돌잔치를 하고 미국에서는 가족끼리 모여 간단히 돌상만 차리기로 결정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잔치가 결정되면서 준비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우선 장소는 북적대고 아무런 특색이 없는 음식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던한 분위기가 풍기는 콘도 파티룸을 빌려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외의 준비는 주로 집사람과 딸 아이가 매일같이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하였고 나는 중간에 한두번 끼어 들었지만 진부한 생각만 갖고 있는 나로서는 판단할 줄을 몰라 그냥 가계 일만 열심히 하였다.

돌상준비와 돌잡이 및 한복 등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이벤트 회사를 결정하고 사진은 전문가 수준의 외삼촌에게 부탁하자고 하니 외삼촌도 축하하객인데 죄송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별도로 사진사를 초청하였다. 음식도 세군데로 나누어 주문하였고 돌 케이크와 떡 그리고 디저트도 준비하였으며 커피는 아들이 향 좋은 커피를 골라서 갈아 내리기로 하였고 노래방이 되는 마이크까지 준비하였다.

잔치날이 되자 나는 가게에서 그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신고 올라 오기로 하였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되니 아침부터 카운터앞에 적혀있는 종이를 보고 챙긴다. 커피머신, 커피 보온통, 전기밥솥, 냉동 파이, 커피 내릴 물, 동전롤(풍선 배달하려고), 주문한 케익 찾아가기 등등 하나씩 다 지워가며 차 안에 케익을 담은 박스까지 실어놓고는 준비 끝. 헬퍼가 와서 버튼터치하고 곧바로 케익 집으로 향한다.

테코레이션용으로 아마존에서 주문한 큰 풍선 10개가 도착하여 사위가 두번씩이나 파티랜드에 가서 헬륨을 주입하여 갖고왔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한개를 못갖고 왔다고 한다. 나보고 오는 도중에 픽업해 오라는 연락이 와서 케익을 찾은 후 파티랜드로 향하였다.



큰 프라자 안에 있는 파티랜드를 발견하고는 주차를 하러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승용차 1대가 튀어나 왔다. 나는 깜짝놀라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무슨 쿵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아~~ 아 뽀빠 조수석 위에 올려 놓았던 돌 케이크가 바닥에 곤두박질 처져 있는게 아닌가?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손녀의 얼굴이 스쳐간다.

실망할 딸아이 얼굴 그리고 호랑이같은(?) 마누라 얼굴까지 오버랩되어 지나간다. 얼른 케익을 올려 뚜껑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한쪽이 완전히 몽그러져 있었다. 일은 이미 벌어진 것. 풍선을 찾아온 후에 다시 케익집으로 향한다. 다른 것으로 준비를 하든 망가진 케익을 수리 보수를 하든 일단 전문 가한테 매달릴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케익 집 주인이 망가진 케익을 보더니 기가 막혀한다.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한다. 5시가 파티시작이니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해달라고 떼를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눈물겨운 고마움을 느끼며 수고비를 지불하러니 안받는단다.

벌써 모든 준비는 마무리 되어있었고 음식만 배달으면 된다. 손녀는 호수가에서 사진촬영 중이다. 얼른 집이 사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파티룸에 가보니 음식도 다 도착하였고 손님 몇분도 벌써 와 계셨다.

6시가 좀 넘어 사위가 사회를 보며 잔치는 시작되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다같이 부르고 나는 손녀를 위하여 박두진의 시 '해' 를 낭송하였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주위를 밝고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선택한 것이다. 돌잡이로 손녀가 마패를 잡으려고 하다가 너무 커서 잡지 못하고 엽전을 잡았다. 그 사이에 아들은 커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커피머신에 물까지 다 붓고 커피를 내리려는데 커피내리는 팻을 가게에서 안갖고 온 것이다. 또 한번의 실수로 힘이 쪽 빠진다. 아~ 이 바보! 팻을 안 적어 놓았다고? 어찌랴. 방법이 없어 늦게나마 1층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왔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멀리서 오신 분들 그리고 갈 길이 바쁜 분들이 한 분 두분씩 멀어지면서 9시가 좀 넘어 파티는 마무리되었다. 파티를 마치면서 아쉬움과 미련이 참 많이 남는다. 이처럼 조그마한 행사에서도 실수와 미련과 아쉬움이 이렇게 남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닥쳐 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라는 큰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여본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후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글은 작년에 손주 돌잔치 후 적어본 행사 후기이며 회원들과 감상을 나누고 싶어 실험뉴스에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EXCLUSIVITY AGREEMENT <2019>

Nestlé Ice Cream



This agreement, between Nestlé Canada Inc. ("Nestlé") and a member ("Member") of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OKBA"), is governed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agreement made with OKBA for all of its members. Nestlé agrees to pay the Exclusivity Rebate to every OKBA Member that carries Nestlé Ice Cream exclusively.

On top of the 4% sales Rebate, 4% of Exclusivity Rebate will be paid quarterly by OKBA Head office to member stores selling Nestlé Ice Cream products exclusively, Novelties and Packaged.(Exclusive member : total 8% Rebate)

- From the 2nd quarter of 2019, total 8% of Rebate will be paid quarterly by OKBA HQ to member stores selling Nestle Ice Cream products exclusively.
- If you sell Nestle ice cream products with other brand ones, you don't have to submit this agreement.
- Please submit exclusive agreement form **with most recent invoice** by May 31. (Fax. 416-789-7834 / Attn. Nestle Ice Cream)
- The exclusive member list should be updated every year, so please send us exclusive agreement from even year though you submitted last year.

* 2019년 2/4분기부터 Nestle Ice Cream을 독점취급하시는 회원에게 총 매출의 8% 리베이트를 분기별로 협회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 타사 아이스크림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독점 취급동의서(Exclusivity Agreement)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본 양식에 서명날인하여 **최근 인보이스**와 함께 5월 31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fax. 416-789-7834 / email. accounting@okba.net / Attn. Nestle Ice Cream 담당자)

*** 동 계약서는 기존 체결 회원들에게도 해당되니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is Agreement commences on April 01, 2019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expiring on March 31, 2020

At the end of the Agreement, member will sign a new agreement for an additional one-year period to be eligible for the Exclusivity Rebate.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re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I agree to carry Nestlé Ice Cream products exclusively within Nestlé's terms.

Signature of OKBA Member

Name (Please Print)

Store Name

Address

Phone Number

Nestlé Customer Number

OKBA Membership Code

OKBA Chapter

Date



Offer valid for March/April 2019

NEW for 2019 Buy more ... get more!

Buy \$325 & get 1 **FREE CASE**
of Drumstick Rolo valued
at **\$40.08.**



Buy \$450 & get 1 **FREE CASE**
of both Drumstick Rolo **AND**
Drumstick Mocha Cookie Crunch
valued at **\$87.12**

Buy \$550 & get 1 **FREE CASE**
of each of Drumstick Rolo &
Drumstick Mocha Cookie
Crunch **AND** Maynard's Fuzzy
Peach and Swedish Berry value
at **\$113.52**



Please contact Nestlé for full details. Valid for one-time use only. Not valid in combination with any other offers or promotions. Offer expire April 30, 2019. While quantities last.

*\$ value before taxes on purchases of Nestlé Single Serve Ice Cream products.

MAYNARDS AND SWEEDISH BERRIES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MONDELÉZ INTERNATIONAL GROUP, USED UNDER LICENSE BY: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9 NESTLÉ. ALL OTHER TRADEMARKS ARE OWNED BY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AND USED UNDER LICENCE. ©2019 NESTLÉ.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김대영 (Dae-Young Kim)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 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조합, 베이핑 제품 6월부터 배달

HBC 제품 배달로 확대 계획

협동조합이 현재 취급 중인 베이핑 제품의 배달 서비스에 착수한다. 6월부터 시작될 배달 서비스는 광역 토론토는 매주 1회, 이외의 지역은 격주로 1회씩 실시한다.

주문은 주문 양식을 통해 조합 팩스로 송부 한다. 현재 조합에서는 블루(blue), 주울(JUUL), 스틸스(SILTH), 스티그(STIG), 마이리(MYLÉ) 등 총 5종의 인기 전자담배를 취급하고 있다.

한편, 베이핑 제품 배달 서비스가 순조롭게 진행돼 시스템이 안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소형 제품 예를 들어 상비약품과 일상 미용상품인 HBC 제품군(Health & Beauty Care)의 배달도 함께 할 계획이다.

목표는 가을부터로 잡고 있다. 협동조합 신영하 이사장은 "특히, 조합 약품류는 가격도 적정하고 구색이 다양하고 폭넓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MSRP)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MAY

Special Sale



2³⁹



9⁹⁹

Snapple

Snapple 12/473ml

All Flavours Reg.\$12.55 **Spe.\$9.99**



19⁹⁹

Fiji

24/500ml Reg.\$24.49 **Spe.\$18.99**

12/1L Reg.\$22.2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Mott's

Clamato Juice 945ml All flavours Reg.\$2.59 **Spe.\$2.39**

Clamato Juice 1.89L All flavours Reg.\$3.79 **Spe.\$3.49**

Welch's Grape Juice 1.36L Reg.\$2.99 **Spe.\$2.75**

Welch's White Grape Juice 1.36L Reg.\$2.99 **Spe.\$2.75**

Mr and Mrs T's Mixes 1L All flavours Reg.\$3.09 **Spe.\$2.59**

3²⁹



Nestle Purina

Cat Chow 1.6kg~2kg All Kinds Reg.\$7.45 **Spe.\$6.89**

Cat Chow 750g Reg.\$3.35 **Spe.\$2.79**

Cat Chow Natural 1.42kg All Kinds Reg.\$7.45 **Spe.\$6.89**

Wet Cat Fancy Feast 24/85g All Kinds Reg.\$16.39 **Spe.\$13.79**

Tidy Cat 6.35kg All Kinds Reg.\$6.79 **Spe.\$5.69**



1⁵⁹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2⁴⁹

Mondelēz
International

2⁸⁹

2⁸⁵



Mondelez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85**
 Oreo 300g All Kinds Reg.\$3.25 **Spe.\$2.85**
 Peek Freens 300g All Kinds Reg.\$3.25 **Spe.\$2.89**
 Chocolate Bar King Size 66-90g All Kinds Reg.\$34.59 **Spe.\$31.99**
 Dairy Milk 42g All Flavours Reg.\$23.85 **Spe.\$21.99**

21⁹⁹

6⁴⁹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2¹⁹



Regal

Junior Mint Minis Peg Bag - 127g	\$2.49	\$2.19
Junior Caramels Peg Bag -127g	\$2.49	\$2.19
Dubble Bubble Asst Gumballs	\$13.59	\$11.99
Cry Baby Sour Gumballs	\$13.59	\$11.99
Fizz N Fizzing Bubble Gum	\$13.59	\$11.99
Dubble Bubble Seedlings Tube Gum	\$13.59	\$11.99

11⁹⁹



13⁹⁹



4¹⁹

C.B.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Weetabix

Whole Grain Cereal 400g
 Reg.\$3.99 **Spe.\$1.99**

1⁹⁹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1⁹⁹

1⁸⁹

1⁶⁹



Dare

Real Fruit Gummies 140-180g All Flavours Reg.\$2.05 **Spe.\$1.89**
 Traditional Candy Pegtop 200-250g All Kinds Reg.\$1.89 **Spe.\$1.69**
 Econo Cookies 300-315g All Kinds Reg.\$1.99 **Spe.\$1.75**

1⁷⁵

19⁴⁹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17⁹⁹



Melitta

- Coffee Filter #2 Reg.\$2.05 **Spe.\$1.85**
- Coffee Filter #4 Reg.\$2.05 **Spe.\$1.85**
- Coffee Filter #6 Reg.\$2.05 **Spe.\$1.85**
- Coffee Filter Filter Basket 100's Reg.\$1.89 **Spe.\$1.69**
- Melitta Coffee 250-300g All Flavours Reg.\$5.65 **Spe.\$4.55**



Clover Leaf

-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19**
-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Bertolli

-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19**
-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4.95**
-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4.95**



Campbells

- Red & White Soup 284ml All Flavours Reg.\$1.69 **Spe.\$1.45**
-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2.99 **Spe.\$2.25**
- Chili 425g All Flavours Reg.\$2.55 **Spe.\$2.29**
- Franco American Gravy 284ml All Flavours Reg.\$1.19 **Spe.\$0.95**



Kingsford's Cornstarch

454g Reg.\$1.49 **Spe.\$0.89**



Maple Syrup

Camp 100% pure 250ml
Reg.\$6.99 **Spe.\$4.99**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8.99**



McCain

-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39**
-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39**
-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39**
-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89**
-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89**
-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89**
-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39**



Sara Lee

-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Flexi Wings 12pk	4.69	3.95
Flexi Wings 16pk	4.69	3.95
Reg 64pk	4.69	3.95
ALWAYS THIN/MINCE FLEXI-STYLE		
Panti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15¹⁹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24⁹⁹

Cricket Lighters Pre Pack



West Mall 169-175 The West Mall
 T.(416)867-1444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2019 5.26~6.29



Doritos XL 2/\$7⁵⁰



Cheetos XL 2/\$7⁵⁰



Doritos / Cheetos 2/\$3



Spitz 2/\$4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5월 26일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